

만프레도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판 독해를 위한 이중의 문맥

Doble Contexts for Reading Manfredo Tafuri's Criticism of Ideology

박 정 현*

Park, Junghyun

(도서출판 마티 편집장)

Abstract

Autonomia movement that emerged in Italy in the 1960s from workerist (operaismo) communism gives historical and discursive context to Manfredo Tafuri's famous criticism of ideology. His thesis on the death of architecture was a radical criticism of Keynesian intervention which was a strategy to cope with the Great Depression. For him, this capitalist development had taken away ideological prefiguration from architecture. At least Tafuri's this early intellectual phase was formed in the wake of magazine *Contrapiano* and Antonio Negri's influence. Tafuri almost entirely adapted Negri's thought on the importance of capitalist innovation that was uncovered by Keynes, Schumpeter, and Manheim and the periodization in modern history. When we read Tafuri's text with this concrete context, we can avoid being plunged into his abstruseness. On the other hand, 1980's Korea cannot understand Tafuri comprehensibly. 1980's situation to struggle to acquire democracy prescribed only one mode of reception of Tafuri's historiography in Korea. Tafuri's so-called pessimist view point could not satisfy student activists. They want to take intellectual means to sustain student movement and to secure political dynamics of protest.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anxiety to understand tafuri's thesis that they consider ad a critical theory for Korean Architecture. Double contexts of Tafuri's criticism of ideology bring to light to historicize both Tafuri's historiography itself and reception of his text in Korea.

주제어 : 타푸리, 이데올로기, 비판, 부정성, 아우토노미아, 1960년대, 1980년대, 학생 운동

Keywords : Manfredo Tafuri, Ideology, Criticism, Negativity, Autonomia, 1960's, 1980's, Student Movement

1. 서론

이탈리아 건축역사학자 만프레도 타푸리(Manfredo Tafuri, 1935~94)가 건축사 서술과 비평에 끼친 영향은 크다. 특히 건축사를 걸작과 거장의 연대기가 아니라, 제도와 기관, 사회와 자본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타계한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란 거의 불가능하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 Corresponding Author : junghyun.mt@gmail.com

1) 예를 들어, 최근 건축담론에서 사라진 유토피아를 다시 한 번 사유하려는 라인홀트 마틴(Reinhold Martin)의 저서 *Utopia's Ghost: Architecture and Postmodernism, Again*, 1st ed.,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곳곳에서 만프레도 타푸리와 대면하려는 시도가 드러난다. 또 20세기 건축사와 이론의 역사를 discipline의 부침으로 다루는 탈 카미너(Tahl Kaminer)의 *Architecture, Crisis and Resuscitation: The Reproduction of Post-Fordism*, 1st ed., Routledge, London, 2011의 추천사에서 힐데 하이넨(Hilde Heynen)

고 악명 높은 난해함과 이탈리아어-영어 번역의 문체 등으로 타푸리의 저술은 폭넓게 분석되고 논의되지 못했다.²⁾ 영어 번역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한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은 카미너가 타푸리와 프레데릭 제임슨의 족적을 뒤따른다고 단언한다.

2) 영미권에서 타푸리는 주로 초기의 두 저서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Harpers & Row, New York, 1980(이탈리아 초판은 1968)과 *Architecture and Utopia*, MIT Press, Cambridge MA., 1976(이탈리아 초판은 1973)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후자는 이탈리아 원제목인 *progetto*를 *utopia*로 번역한 것을 비롯해 번역에 대한 이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Jean-Louis Cohen, "Italophiles at Work" i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Cambridge MA., 1998; Carla Keyvanian, "Manfredo Tafuri: From the Critique of Ideology to Microhistories" in *Design Issue*, vol.16, no.1, Spring, 2000; Daniel Sherer, "Translator's Preface" in *Manfredo Tafuri, Interpreting the Renaissanc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2006 등을 참조. 장루이 코헨은 타푸리의 번역에 관해 언급하며 "미국에서 『건축과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학살당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80년대부터 회자되어 왔으나,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근거나 입장을 취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타푸리에 대한 역사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단편적인 이해는 르네상스 연구에 매진한 후기 타푸리를 과거로 후퇴했다는 또 다른 단순한 평가를 낳았다. 타푸리의 지적 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야 시도되었다.³⁾ 그러나 이 시도 역시 기존의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거듭된 독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의 깊이를 더해오지 못한 채, 때때로 호출되어 유명처럼 출몰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타푸리의 지적 여정에 초점을 맞춘 모노그래프가 속속 출간되어 타푸리의 저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주었다.⁴⁾ 한편 건축 분야 바깥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도 타푸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1960년대 이탈리아 아우토노미아 운동에 대한 관련 저술은 타푸리의 초기 저술을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을 제공해준다.

본 논문은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1960년대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판이 주도된 역사적 배경을 추적한다. 역사적 문맥에서 타푸리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타푸리의 역사관을 역사화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타푸리를 특정한 틀에 가두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 또 본 논문은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판이 수용되던 한국의 상황을 살핀다. 제한적인 사료와 빈약한 해석학적 깊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이론의 수용 과정을 살피는 일은 당시 한국 건축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2. 반(反)계획과 이데올로기 비판

2-1. 국가의 계획과 건축의 이데올로기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잡지 시대라 부를 만한 것을 경험했어요.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와 1956년 헝가리 봉기 이후 극좌파 진영에서 시작되었습니다.⁵⁾

3) 타푸리에 대한 국내 건축계의 평가로는 2013년 철학아카데미에서 주최한 「만프레도 타푸리의 건축이론」이 대표적인 예다. 8회에 걸쳐 진행된 이 특강 시리즈에 참여한 강연자는 김일현, 이상현, 배형민, 박정현, 남성택, 조성용, 김영철, 정만영이다.

4) 타푸리에 관한 대표적인 모노그래프로는, Andrew Leach, Manfredo Tafuri, *Choosing History*, A&S/books, Gent, 2007; Titia Rixt Hoekstra, *Building versus Bildung: Manfredo Tafuri and the Construction of a Historical Discipline*, Groningen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05 등이 있다.

5) 안토니오 네그리, 베리너 페이더와의 대화: “The Real Radical?”, in *The Italian Avant-garde, 1968-1976*, 1st ed., Sternberg Press, Berlin, 2013, p.202

50년대 말부터 이탈리아에서 창간과 폐간을 거듭하며 쏟아져 나온 잡지에 타푸리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69년이다. 타푸리는 알베르토 아소르 로사, 마시모 카치아리, 안토니오 네그리가 공동 편집인으로 창간한 『콘트로피아노』(*Contropiano*, 1969년 1호)⁶⁾에 저 유명한 「건축 이데올로기 비판을 향하여」를 기고하며, 본격적인 저술활동을 시작한다.⁷⁾ 이 글에서 타푸리는 19세기 중엽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를 세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시기 구분은 자본주의의 전환점을 어디에 두는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타푸리에 따르면, 첫째는 낭만주의 신화를 도시 이데올로기로 극복하는 단계다.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를 투사하고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부각시킨 아방가르드가 부흥한 시기다. 세 번째는 건축의 이데올로기가 계획의 이데올로기로 바뀌는 시기로 1929년 대공황 이후의 국면이자, 자본이 국제적으로 재편되고 러시아의 첫 5개년 계획(1928~32)이 시행되던 때다.⁸⁾ 20세기 초의 급변기를 구분할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7년과 대공황과 과시즘이 도래한 1920년대 말~1930년대 초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는 일, 즉 역사적 아방가르드와 바이마르 공화국이 존재한 시기 전후를 나누는 것은 그다지 낯설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예술사의 양식적 변화나 과시즘의 도래로 많은 건축가와 예술가가 유럽을 떠나게 되는 사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세 번째 단계, 건축이 계획(plan)에게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내준 1929년에 주목하는 타푸리는, 1929년을 근대 국가의 변모 과정에서 근본적인 계기로 여기는 안토니오 네그리를 거의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 실제로 네그리는 「케인즈 그리고 1929년 이후의 자본주의적 국가이론」이라는 글을 타푸리의 에세이보다 1년 먼저인 『콘트로피아노』(1968년 1호)에 기고했다.⁹⁾ 잡지 발행이 곧 운

6) *Contropiano*의 에디터 세 사람은 모두 다른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아소르 로사는 로마, 네그리는 파두아, 카치아리는 베니스가 주 활동지였다. *Contropiano*는 “반(contro: against; anti)계획(piano: plan)”이라는 뜻으로 1968년에서 1971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발간되었지만, 네그리의 두 논문을 비롯해 카치아리의 「부정적 사유의 기원에 관하여(Sulla genesi del pensiero negativo)」 등의 글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7) 훗날 *Architecture and Utopia*, 1st ed., MIT Press, Cambridge MA, 1976으로 발전하는 이 글은 Michael Hays가 엮은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1st ed., MIT Press, Cambridge MA, 1998에 수록되어 있다.

8) Manfredo Tafuri, “Towards a Critique of Architectural Ideology”, i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p.15; *Architecture and Utopia*, pp.48~49

9) 네그리의 글 이외에 *Contropiano* 창간호에 실린 글은 다음과 같다. 마리오 트론티, 「극단주의와 개혁주의(Estremismo e riformismo)」; 알베르토 아소르 로사, 「젊은 루카치의 부르주아 예술이론(Il giovane Lukacs teorico dell'arte borghese)」; 마시모 카치아리, 「변증법과 전

동이었던 시대, 네그리와 타푸리, 그리고 카치아리 등은 『콘트로피아노』를 통해 비슷한 목소리(동시에 갈등의 씨앗을 내포한)를 한데 모으고 있었다.

타푸리는 『건축과 유토피아』의 영문판 서문에서 「건축 이데올로기 비판을 향하여」가 실린 잡지의 문맥을 언급한다.

이 에세이(그리고 동일한 노선에 따라 동료들과 내가 쓴 다른 에세이)가 실린 잡지는 잡지의 정치적 역사와 관심과 사유의 특정한 노선에 의해 매우 명쾌하게 정의된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해석을 애초에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잡지의 이론적 문맥에서 다루었던 건축 문제를 따로 떼내면 내 에세이는 묵시론적 예언으로 여길 수 있다. 말하자면 “포기의 표현”이자 “건축의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선언이었다.¹⁰⁾

잡지가 표명한 동일한 노선과 전략에 따라 글을 썼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그 문맥을 벗어나도 글이 독자적인 생명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네그리는 「케인즈 그리고 1929년 이후의 자본주의적 국가이론」에서 1848년, 1871년, 1917년 그리고 1929년으로 시기를 나누는 것이 현대국가의 이론화에 유일하게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고 말한다.¹¹⁾ 1848년에서 1929년을 하나의 시대 단위로 생각하는 네그리의 테제는 여러 글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타푸리가 조르조 추치, 프란체스코 달 코, 마리오 마니에리-엘리아와 함께 1969~70년에 수행한 연구를 펴낸 『미국의 도시: 남북전쟁에서 뉴딜까지』(1973)의 시간 구분도 그 대표적인 예다. 미국의 문맥에서 유럽의 1848년에 해당하는 것을 남북전쟁으로 여긴다면 이 연구가 다루는 시기는 네그리의 시기와 그대로 일치한다.¹²⁾

통(Dialectica e tradizione). *Contropiano*의 활동에 관해서는 Marco Biraghi, *Project of Crisis*, 1st ed., MIT Press, Cambridge MA, 2013, p.28; Massimo Cacciari, *Architecture and Nihilism: On the Philosophy of Modern Art*, 1st ed.,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93, pp.xv~xx; Beatrice Colomina ed., *Clip, Stamp, Fold: The Radical Architecture of Little Magazines 196X to 197X*, 1st ed., Actar, Barcellona, 2011, p.106; Gail Day, *Dialectical Passions: Negation in Postwar Art Theory*, 1st ed.,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1, pp.109~122; Pier Vittorio Aureli, *The Project of Autonomy*, 1st e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08, pp.39~53 등을 참고하십시오.

10) Manfredo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p.vii

11) Antonio Negri, *Keynes and the Capitalist Theory of the State post-1929*, Revolution Retrieved, 1st ed., Red Note, London, 1988, p.5; 안토니오 네그리, 「케인즈 그리고 1929년 이후의 자본주의적 국가이론」, 『혁명의 만화』, 1판, 갈무리, 서울, 2005, 24쪽

12) Giorgio Ciucci, Francesco Dal co, Mario Manieri-Elia, and Manfredo

1848년은 최초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 할 수 있는 6월 혁명이, 1871년은 파리코뮌이, 1917년은 성공한 최초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인 러시아혁명이, 1929년은 대공황이 발발한 해이다. 노동자 계급의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네그리가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이 한 앞의 세 사건과 분기점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반면 1929년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한 중요한 분수령이었음에 틀림없지만, 노동자 계급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건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권력이 노동계급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네그리에 따르면 1917년 러시아혁명은 노동계급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었다. 노동계급을 온전히 통제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불안요소야말로 위협이자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였다. 1929년이 결정적인 까닭은,

노동계급의 출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노동계급이 국가 권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체제의 필연적 특징으로 제시한, 체제 내부의 제거불가능한 적대한 인식이었다.¹³⁾

노동계급의 존재를 인정하되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체제 내부의 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것, 체제의 위협을 역설적으로 발전의 요소로 바꾸어 낼 묘책을 발견한 이가 바로 케인즈였다. 자유방임의 시대가 끝나고 국가가 계획의 주체로 등장한다.¹⁴⁾ 이제 국가는 “계획자로서의 국가”, 더 정확히는 “계획의 국가”가 되었다. 단적으로,

국가계획의 동역학은 일종의 ‘영구혁명’을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영구혁명을 자본의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지양(Aufhebung)하는 것이다.¹⁵⁾

Tafuri, *The American City: From the Civil War to New Deal*, 1st ed., MIT Press, Cambridge MA, 1973, pp.281~282.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권리를 진정하는 결정적 계기라고 평가하고, 유럽의 중산계급도 이 사건에 깜짝 놀랐다고 평가한 마르크스의 입장을 따른다면 유럽과 미국의 시작점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Karl Marx, *Capital*, vol.1, 2nd ed., Penguin Books, London, 1976, p.91. 실제로 달 코는 위의 책 주석에서 네그리의 글을 언급하며, “비록 지금(1973년)은 그 글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만큼 나에게 딱 맞다고 하긴 어렵지만, 이 분야의 내 연구를 처음 자극했다는 건 틀림없다”고 고백한다.

13) Antonio Negri, *ibid*, p.7; 31쪽

14) *ibid*, p.7; 32쪽;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에 기초한 미국의 뉴딜 정책과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은 경제에 국가가 치밀한 계획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전 히틀러는 미국의 뉴딜 정책을 크게 반겼고,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뉴딜이 전체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볼프강 슈벨부시의 『뉴딜, 세 편의 드라마』, 1판, 지식의 풍경, 서울, 2009를 참조하십시오.

자본주의-국가체제가 존재하는 한 노동계급은 끊임없는 부정성을 유지하면서 영구적으로 혁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트로츠키의 입장이 무색하게, 영구혁명론은 이제 국가의 목표가 되었다. 이 공식이야말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개입하는 현대 국가의 핵심이라는 것이 네그리의 설명이다. 계획하는 국가의 임무는 미래를 불확실한 것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일이다. 이는 뉴딜뿐만 아니라, 소련의 경제개발계획, 나아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도 마찬가지이다.¹⁶⁾ 그래서 케인즈의 제1명령은 미래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다. 미래는 현재로서 고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미래로부터 현재를 방어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현재 내부로부터 미래를 기획하고 현재의 기대에 따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라면, 국가는 개입을 확대하여 계획자의 역할까지 맡아야 하며, 그 결과 경제는 사법적인 것 속으로 병합된다.¹⁷⁾

타푸리의 『건축과 유토피아』 3장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네그리의 이 테제에 대한 응답이다. 공교롭게도 이 챕터는 『건축과 유토피아』의 근간이 된 「건축 이데올로기 비판을 향하여」에는 빠져 있는 글로, 초고는 『콘트로피아노』 1970년 2호에 수록된 「지적 노동과 자본주의 발전」(Lavoro intellettuale e sviluppo capitalistico)이다.¹⁸⁾ 타푸리가 네그리의 글을 읽고 건축과 도시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을 추가해 넣은 것으로 여겨도 좋다.

노동자 계급이 국가의 계획에 복속되지 않고 자율성(autonomia)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네그리를 비롯한 당시 아우토노미아 운동을 이끈 이들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런 계급적 이해 이전에 타푸리는 베네치아에 자리잡기 전 로마 시절에 시도했던 여러 활동을 통해 국가의 계획 앞에 건축의 한계를 경험한 바 있다. 1960년대 초반 타푸리는 ‘로마 도시계획가 건축가 연합’(Architetti e urbanisti associati di Roma)과 ‘건축가학생협회’(Associazione studenti e architetti) 같은 활동을 통해 전후 이탈리아 경제가 급

속히 발전하는 것과 보조를 맞춘 경제개발계획(piano regolatore generale, PRG)이 야기하는 문제와 씨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데올로기 비판이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정립되기 전에 이미 공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건축이 반격을 가하는 것은 무기력함을 절감한 것이다.¹⁹⁾

2-2. 부정성의 변증법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타푸리의 지적 배경으로 흔히 지목되는 벤야민과 아도르노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는 정치적, 사상적 입장이 상당히 다른 짐멜, 베버, 케인즈, 슈페터, 만하임 등이 주요 참고문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도 눈길을 끈다. 이 글은 미래를 그려 보이는 것이 본령인 유토피아가 미래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추구하는 것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진단으로 시작한다. 이제 미래는 이데올로기를 투사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실험해볼 수 있는 곳으로 비어 있지 않다. 국가가 계획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조작하고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 자본주의가 건축에서 빼앗아간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것이다. 타푸리는 케인즈에 관한 네그리의 분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

베버와 케인즈, 슈페터 그리고 만하임에게, 관건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자본과 노동의 노동계급적 측면)을 하나로 만들고, 이 두 개념을 뗄 수 없게 하고, 이들을 상보적인 관계로 만들 수단이였다. 그들 모두 핵심 주제는 현재가 투사되는 미래, 미래의 “합리적 지배”, 이에 수반되는 “위협”의 제거였다.²⁰⁾

전통적인 미적 규범과 제도를 위반하는 아방가르드(체제의 입장에서는 부정성) 역시 위의 구도에 따르면(계획과 개발의 변증법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긍정성일 따름이다. 아방가르드의 위반은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예방주사와 같은 것이다. 격심한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고통을 없애버리는 것이 부르주아 예술의 주된 윤리적 요구”라는 『건축과 유토피아』의 유명한 첫 문장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은 무제한적인 개발의 한 요소가 됨으로써 체제에 흡수되고 체제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연적인 요소로 탈바꿈한다. 결국 이는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의 주체를

15) Negri, *ibid.*, p.8; 32쪽(번역 일부 수정)

16) 네그리의 입장, 나아가 타푸리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 계획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본격적인 자본주의와 근대국가 출범을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체제와 떼어서 생각하기 힘든 한국의 경험, 제3세계의 경험과 유럽과 미국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에 관해서는 “박태관, 『원형과 변용』, 1판,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2007”을 참조.

17) Negri, *ibid.*, p.13; 56쪽

18) Pier Vittorio Aureli, *Intellectual Work and Capitalist Development: Origins and Context of Manfredo Tafuri's Critique of Architectural Ideology* (<http://thecityasaproject.org>)

19) Andrew Leach, “Choosing history: Tafuri, criticality and the limits of architecture”, in *The Journal of Architecture*, vol.10, no.3, 2005, pp.237~238

20) Manfredo Tafuri, *op. cit.*, pp.51~52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속류 마르크스주의는 역사가 중국에 이르러 공산주의로 귀결될 것이기에 자본주의를 역사의 필연적인 단계로 설정할 수 있었다. 때문에 봉건단계에서 자본주의 단계로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미래가 국가의 것이라고 여길 때 상황은 완전히 반대다. 노동계급의 자율성을 피하고자 한 당시 이탈리아의 여러 사회-노동 운동 분파들의 입장도 이 상황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예컨대, 노동자주의운동(operaiismo)의 핵심 논자이자 이탈리아 공산당원이며 『콘트라피아노』의 주요 필진이었던 트론티는 노동계급의 노동 없이는 자본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비판과 저항의 거점에 대해 낙관적이었다.²¹⁾ 심지어 관료적인 이탈리아 공산당이 그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반해 네그리는 기존 체도를 통한 진술은 개혁주의적일 뿐이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빼고는 어떤 동맹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노동계급이 자본의 (변증법의 구도에서 통합되어 지양되고 마는) 모순이 아닌 적대가 되는 것이었다.²²⁾

다른 한편으로 이는 예술(나아가 건축)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공장에서 사회전반으로 자본주의가 확대될 때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아방가르드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은 일종의 리얼리즘적 전략이다. 산업현장과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문학이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탈로 칼비노와 잡지 『일 메나보』(Il Menabò, 1959~1967)를 함께 펴내던 작가 엘리오 비토리오네는 리얼리즘적 전략을 대변했다. 당시 이탈리아를 휩쓸었던 네오리얼리즘의 여파이기도 했다. 이에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프랑코 포르티니는 격렬히 반대했다. 같은 잡지 5호에 실은 「비둘기처럼 영리하게」(Astuti come Colombe)에서 포르티니는 비평가는 자본주의 발달이 어떻게 이데올로기의 원천이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 계급의 권력을 재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진보적 지식인조차 현실에 만족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객관적인 현상을 다루려는 시도, 모든 개혁적인 시도를 거부하고 블로흐나 아도르노식의 부정성

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포르티니의 입장이었다.²³⁾ 타푸리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입장을 견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타푸리는 자신이 60년대 이탈리아의 논쟁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당시 참조했던 주요 인물로 포르티니를 언급한다.²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비칠 수도 있는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총체적인 탈주술화의 결과다. 부정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부정성마저 자본과 국가의 변증법적 운동에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비평가 또는 역사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타푸리는 과연 이데올로기의 격전장에서 패퇴하고 르네상스로 도피했던 것일까?

3. 타푸리와 80년대 한국

3-1. 마르크스주의자로 발견된 타푸리

비록 자의적 수임이었지만 나는 어떤 거대한 중심이자 전략단위로부터 비평의 무기를 수임받았다는 의식 속에서 글을 써왔다. 논쟁을 할 때도 설득을 할 때도 내겐 언젠가 돌아갈 내 입장을 조회받고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어떤 중심이 있었다.²⁵⁾

80년대 중반 민족문학-민중문학 논쟁을 촉발한 한 비평가는 그 당시를 회고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물론 ‘거대한 중심이자 전략 단위’는 마르크스주의이다. 여전한 냉전구도에 군사 정권의 폭력과 학원 탄압이 이어지던 80년대에 지식인과 대학생들에게 마르크스주의는 거의 유일한 ‘과학’이었다. 이 큰 우산은 확고한 비평적 입장을 제공해 주었지만, 세계를 이해하는 다른 시선을 가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실제로 1980년대 내내 한국의 지식-담론계는 세계를 휩쓴 ‘프랑스 이론’의 무풍지대였다. 문학 비평의 거두이자 프랑스 지성계에 눈이 밝았던 김현조차 미셸 푸코를 단지 문학 비평가로 이해할 정도였다. 이런 사정에 비하면 건축계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국가와 체제 바깥에(적어도 그들의 인식과 목표에 따르면) 저항의 진지를 마련하려고 했던 문학이나 미술과

23) Eugenio Bolongaro, *Italo Calvino and the Compass of Literature*, 1st ed., Toronto University Press, Toronto, 2003, pp.41~45; Lucia Re, *Calvino and the Age of Neorealism: Fables of Estrangement*, 1st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90, p.19

24) 타푸리가 프랑수아 베리와 나눈 인터뷰를 참조하시오: “The Culture Market: Francoise Very interviews Manfredo Tafuri,” in *Casabella 619-620*, 1994, p.37. Aureli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 타푸리는 자신의 초기 영향관계를 밝히기를 꺼려하면서도 포르티니의 글을 읽도록 권했다고 한다.(Aureli, *op. cit.*, 각주 16번)

25) 김명인, 「불을 찾아서」, 실천문학, 26호, 1992 여름호, 221쪽

21) Mario Tronti, “The Strategy of Refusal” in *Autonomia*, ed. by Sylvere Lotringer and Christian Marazzi. 1st ed., Semiotext(e), Los Angeles, 2007, pp.30~31

22) 마이클 하트, 『네그리 사상의 진화』, 1판, 갈무리, 서울, 2008, 86~87쪽. 네그리는 『콘트라피아노』 1968년 2호에 「마르크스의 순환론과 위기론」을 게재한 후, 트론티에 입장에 반대하며 잡지 편집위원에서 물러난다.

달랐다. 건축은 여전히 국가-자본주의에 얽매어 있었다. 1960년대 이래 산발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등장한 전통 논쟁은 결국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무엇을 표상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박이었다. 한편에서는 강남 개발의 여파로 생겨난 프로그램인 근생을 중심으로 상업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던 시절이었다. 이 시절 건축계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씨름하고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이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80년대 내내 건축계는 전통-재현-상업-파편 등의 키워드로 이어지는 포스트모더니즘론의 수용과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했다. 인문사회학계와 건축계는 서로 어긋나 있었다. 한국에서 만프레도 타푸리는 인문사회와 건축의 간극,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간극 사이에 위치한다.

타푸리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대략적인 시점은 80년대 초이다.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Pier Luigi Nervi)가 편집하고 이탈리아 엘렉타에서 펴낸 총 14권의 『세계건축사』(History of World Architecture)의 영문판이 국내에 영인본으로 출판된 때가 1981년이다. 이 시리즈 중 하나로 프란체스코 달코가 함께 쓴 『근대 건축』(Modern Architecture)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타푸리의 저서이다. 다만 이때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이자 비평가 타푸리로 독해되지 않았다. 원시시대 건축에서부터 콜럼부스 이전의 남미 건축, 아시아 건축까지 아우르는 야심찬 프로젝트에서 근대 건축편을 집필한 한 명의 역사가였지 한국 건축의 현실을 비판을 위한 이념적 지원군은 아니었다. 타푸리는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로 재발견되어야 했다. 이상헌과 함인선은 1981년 여름 학교도서관에서 우연히 『건축과 유토피아』(Architecture and Utopia, 1976)를 발견했다고 진술한다.²⁶⁾ 78학번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이 폭압적으로 진압되고 서울의 봄이 좌절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이들은 이데올로기 비판의 근거로서 타푸리를 수용한다. 이들이 타푸리를 읽어나간 배경은 루카치나 브레히트, 아도르노 같은 문예비평가나 비판이론가들이었다.²⁷⁾ 이들의 독해도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문화운동의 문맥이었다. 비슷한 시기

26) 이상헌과의 인터뷰: 2013년 5월 28일; 함인선과의 인터뷰: 2014년 6월 16일

27)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이 타푸리가 80년대 국내에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르크스에 대한 독해는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80년대 중후반이 되어야 마르크스가 읽히기 시작한다. 일례로 마르크스의 『자본』이 처음 번역된 때가 1987년 8월이다(『자본론』, 이론과실천, 서울, 1987). 해방 직후 번역된 판본이 있기는 했으나 널리 읽히지는 않았다. 『자본론』의 최초 번역을 둘러싼 에피소드와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류동민, 『기억의 몽타주: 서울 1988년 여름,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1판, 한겨레출판, 서울, 2013”을 참조.

타푸리를 적극적으로 독해한 다른 경로도 있었다. 『건축과 유토피아』(태림문화사, 1988)를 번역하기도 한 김원갑은 러시아구성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타푸리를 읽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70년대 말 일본 잡지를 통해 접한 체르니코프에 관한 문헌들을 뒤쫓다 타푸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한다.²⁸⁾

이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타푸리를 국내에 소개한 이는 이상헌이다. 그는 1984년 7월 『공간』에 「만프레도 타푸리의 건축론」을 기고한 이래 여러 지면을 통해 타푸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소개하는 글을 썼다.²⁹⁾ 그는 타푸리를 마르크스주의 비평의 틀 안에서 이해하며, 이 비평의 “선도적인 역할”은 “그것[건축]의 사회적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제기로부터 출발하여 건축을 정치, 경제,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정식화한다. 마르크스주의 예술론의 일반적인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계급 건축은 가능하지 않으며 계급 비평만이 가능하다는 타푸리의 유명한 테제를 인용하며, 이상헌은 타푸리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선명성을 재확인한다. “건축을 이같이 제도로 파악하게 된 타푸리의 전환은 건축적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구체화시키면서 모든 개량적 마르크시즘과 결별한 채, 계급투쟁이라는 마르크스 독트린으로의 회귀를 가능케 해주었다.” 그러나 계급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타푸리의 입장은 80년대 중반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기도 해명하기도 힘든 지점이었다. 타푸리의 발견 자체가 마르크스주의 건축 이론에 대한 갈급함에서 이루어졌기에, 독해 역시 그 방향으로 정향될 수밖에 없었다. 계몽주의 이래의 현대 건축을 이데올로기로 파악함으로써 타푸리는 한국 현실을 새롭게 조망할 안경을 제공했으나, 계급 건축의 가능성을 여지없이 닫아버리는 타푸리의 입장은 건축을 통한 ‘운동’이 절실했던 이들에게 해결해야 할 딜레마였다. 위의 글에서 국한해서 말하자면, 이상헌은 계급투쟁의 독려로 절충했던 셈이다. 당시 국내 문화계의 거의 모든 이론적, 실천적 관심은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한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28) 구성주의에 관한 관심으로 그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기인 80년대 중반에 램 콜하스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김원갑, 「제2의 근대와 신구성주의」, 『건축과 환경』, 34호, 1987년 6월, 16~33쪽; 80년대 초 타푸리 독해의 문맥에 관해서는, 김원갑과의 인터뷰: 2014년 8월 1일.

29) 대표적인 글로, 이상헌, 「타푸리의 건축론」, 『공간』, 205호, 1984. 7. 69~71쪽; 「타푸리의 건축비평」, 『건축과 환경』, 25호, 1986. 9. 58~63쪽

사람들의 집단적이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움직임”을 피한다는 생각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³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기에, 문화운동은 프로파간다와 대항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로 생각했다. 결국 관건은 타푸리에 읽어낸 건축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당시 운동에 효용이 있는지 여부였다.

3-2. 이데올로기 비평의 딜레마

부정성의 역사가에게서 운동의 도구를 찾아야 하는 이 과제는 이후 타푸리를 읽는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운동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타푸리 독해가 진영을 갖추기 시작한 때는 1987년 이후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얻어낸 대통령직선제의 결과가 다시 군사정권으로 이어지자, 각 분야별로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건축 분야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움직임은 청년건축협의회(이하 청건협)이다.³¹⁾ 청건협의 기관지인 『청년건축』 1호에 전제된 「한국도시문제의 재인식」은 도시와 공간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한 최초의 문헌 중 하나다.³²⁾ 제3세계의 자본주의 발전 양식, 환경 문제, 도시화와 주택보급률 등 여러 이슈를 제기하는 이 글은 도시와 건축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단언한다. 도시의 정치경제적, 통계를 동원한 정량적 분석과 건축물의 표상과 건축가의 역할 같은 정성적 내용을 매개하는 지점에서 타푸리가 언급된다. 이들에 따르면, 도시와 건축의 공공성마저 도시발전의 모순을 은폐하는 더 세련된 이데올로기이고, 속속 들어선 문화공간 역시 도시 민중의 문화적 욕구와 힘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 형성된 것이 아니다.³³⁾ 타푸리는 이 글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와 건축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한 비평가로 등장한다.

여기서 독해의 관건은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였다. 무엇이 한국사회 모순의 최종심급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볼 수 있듯 변혁 운동의 흐름에는 그 갈래를 일일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이론적 입장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는 평면적이었다.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라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이데올로기 논의만 절대적 진리나 상식처럼 이해되고 있을 뿐”,³⁴⁾ 만하임, 바버, 뒤르캠 등의 이데올로기 논의에 대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말하자면, 『건축과 유토피아』에 등장하는 베버를, 어떤 미망에도 빠지지 않고 총체적인 탈주술화를 통해 현실을 냉혹하리만치 있는 그대로 직시하려 하는 비평가를, 그래서 자본주의적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역사가를 읽지 못했던 것이다.

1987년이 열여섯살의 담론장은 출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³⁵⁾ 타푸리의 『건축과 유토피아』도 복수의 번역물이 출판되었다. 1987년 세진사는 정영철의 번역으로, 1988년에는 태림문화사(신석균 외 번역)와 기문당(김원갑 번역)에서도 각각 번역판을 출간했다. 당시 국내에서 건축서적을 활발히 펴내던 모든 곳에서 타푸리의 주저를 출간한 것이다. 번역서에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복수의 출판물이 나올 수는 있었지만, 중복 출판을 삼가는 것은 출판계의 일종의 불문율이었음을 감안하면 『건축과 유토피아』의 대중적 소구력을 짐작할 수 있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푸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번역을 넘어선 저술 등으로 이어지는 못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건축계에서 가장 학술적인 움직임은 건축운동연구회(이하 건운연)였다. 서울의 주요 대학 건축학과 대학원생이 중심이 된 건운연은 스스로를 “진보적 건축운동이론을 견지하며 각 부문으로 분산되어 있는 건축운동의 각 역량을 진정한 부문들의 협의체적 조직으로 발전시킬 전망을 공유하는 건축운동 종사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했다.³⁷⁾ 청건협이 제도 개선과 실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한 실무 단체였다면, 건운연은 이론적, 학술적 단체였다.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진 건축역사 수업에 갈증을 느낀 이들이 4년 동안 주력한 것도 건축사 연구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컸던 시기였

30) 정이담, 「문화운동 시론」, 『문화운동론』, 1판, 도서출판 공동체, 서울, 1985, 15쪽; 이 글은 문화운동에 주어지는 과제로, 1. 대중선전용 매체 개발 및 보급, 2. 현장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활동 프로그램 개발, 3. 운동권 내부의 정서통일 및 운동적 정서의 확산을 통한 운동의 대중성 확보, 4. 운동의 궁극적 지도이념, 사상의 창출 등을 언급한다.

31) 함인선은 청건협이 87년 6월 항쟁과 이에 따른 민주화 과정이 없었어도 생겨났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민주화와는 무관한 젊은 건축가들의 인정투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분위기와 맞물려 청건협은 민주화운동의 건축 분야를 떠맡게 되었다; 함인선, 「청년건축협의회」(박정현 엮음, 건축과 사회, 제25호, 2013 특별호), 101쪽

32) 이 글이 처음 소개된 곳은 『문학과 역사』, 1호, 1987, 222~251쪽이고 김한준·박인석·이상현·함인선 4인의 공저이다.

33) 앞의 글, 243~245쪽

34) 민문홍, 「이데올로기 개념의 역사: 한국사회 이데올로기 논쟁의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3. 6, 43쪽

35) 사실상의 검열 철폐와 국제 저작권법 미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다. 역설적으로 레닌 저작이 쏟아져 나온 시점은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레닌 동상이 민중들의 손에 의해 철거되던 89~90년 무렵이다.

36) 『건축과 유토피아』 이외에 타푸리의 저술이 번역된 사례는 『청년건축』 4호에 실린 「비평의 과제」다.

37) 박훈영, 「건축운동연구회: 모색과 작은 실천(1989-1993)」(박정현 엮음, 건축과 사회, 제25호, 2013 특별호), 120쪽

던 만큼, 러시아혁명과 구성주의를 비롯한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민중적 시각에서 한국 건축사를 서술하는 일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매주 이루어진 이들의 세미나와 연구활동에서 레퍼런스로 선택한 건축사가는 타푸리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운동을 지원해줄 역사가가 필요했다. 빌 리제베로가 그들이 선택한 ‘대안적 역사’가였다.³⁸⁾

전문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진실로 관여하고자 한다면,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데에 ‘객관적으로 관여하는’ 대중 계급 조직’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³⁹⁾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으로서의 건축을 분명하게 내비치는 리제베로의 글은 80년대 내내 서양문화와 예술사의 기본 텍스트 역할을 한 아놀드 하우스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의 건축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동원하는 일을 역사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 타푸리가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부르주아 체제가 일구어 놓은 비속하고 위험한 사상들이 아니라 바로 그 진정한 전통”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리제베로가 여전히 운동이 절박했던 한국 사회에 더 호소력을 발휘한 것이다.

타푸리의 역사론을 소개하거나 글의 일부분을 번역해 기고하는 것이 아니라, 타푸리의 시각으로 한국의 건축을 분석한 글은 정작 마르크스적 문맥과 무관한 곳에서 등장했다. 운동의 동력이 소진되어 가던 1992년 12월에 개최된 4.3그룹 전시회 도록에서 김광현은 타푸리의 「규방의 건축」을 인용한 「규방閨房의 건축建築을 벗어나기 위해서」를 발표한다.⁴⁰⁾ 형식주의적 분석과 현상학적 접근을 해온 김광현이 타푸리적 스펙트럼으로 4.3그룹을 읽은 일은 징후적이다. 현실 참여적

인 건축 운동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건축담론의 분위기가 현상학과 비움, 침묵과 같은 개념어 중심으로 재편되려고 하던 길목에서 네오 아방가르드의 무용함을 알리는 타푸리의 진단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패배가 현실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을 때, 건축이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가려고 할 때 오히려 타푸리가 호소력을 발휘했다.⁴¹⁾ 90년대 이후 한국 건축의 담론에서 마르크스주의는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 타푸리 역시 역사서술론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면 한국 건축계에 등장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⁴²⁾ 적어도 국내에서 타푸리에 대한 관심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요구와 추구의 부침과 함께 했다. 이 배경이 타푸리를 강하게 필요로 한 만큼이나 타푸리를 좁게 이해하게 하는 구속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4. 결론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1960년대 이탈리아의 노동자 운동과 이 운동을 둘러싼 여러 갈래의 지적 교류 속에서 배태되었다. 아방가르드의 부침, 아우토노미아 운동의 성쇠,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유산, 니체에서 베버로 이어지는 총체적 탈주술화에 따른 니힐리즘, 국가 주도 경제의 본격화, 공산당의 관료화 등이 타푸리의 지적, 정치적 배경이다. 모든 베일이 걷히고 난 뒤, 남은 것은 현실의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재현하는 일이다. 타푸리의 동료였던 아소르 로사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온전히 끝냈기에 ‘자료의 확실성(certainty of datum)’을 추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타푸리의 르네상스사 연구가 결코 단절이나 후퇴가 아니라고 말한다. “총체적 탈주술화는 위대한 역사가를 낳는다. 타푸리가 이런 종류의 위대한 역사가”라는 것이다.⁴³⁾

한국의 타푸리 독해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에너지와 때어서 파악할 수 없다. 비록 해석학적 깊이를 논하기

38) 건운연은 1990년 2월부터 6월까지 빌 리제베로의 『근대건축사와 디자인: 대안적 건축사』(*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An Alternative History*) 번역 작업을 했다(건축운동연구회, 제1호, 건축운동연구회, 1990, 64~65쪽). 박훈영에 따르면 당시 건운연 세미나의 분위기에서 리제베로가 운동에 적합한 반면 타푸리는 미학적이었다.

39) 빌 리제베로, 『건축의 사회사』, 1판, 열화당, 2008, 358쪽; 리제베로의 책은 1990년 기문당에서 『근대건축과 디자인: 배경분석을 통한 건축사』(박두영·이근택 공역)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두 번역서의 제목은 한국 문맥에서 어떤 책으로 비춰지기를 원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40) 김광현, 「규방閨房의 건축建築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시대 우리의 건축』, 1판, 안그라픽스, 1992

41) 1989년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던 80년대의 정조는 1992년 말을 기점으로 사그라진다.

42)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으로는 정인하의 「미셀 푸코와 만프레도 타푸리의 역사이론 비교연구 -건축, 이데올로기, 권력의 계보학-」(건축역사연구, 8권, 3호, 1999. 9)과 이상현의 「만프레도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평과 건축의 실천에 대한 사상의 연구」(건축역사연구, 12권, 2호, 2003. 6) 정도가 전부다. 이 두 글 모두 타푸리의 역사서술과 입장에 대한 탐구를 꾀한다. 타푸리 자체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나 타푸리의 이론과 역사서술이 한국 건축계와 어떤 결절점을 맺는지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43) Alberto Asor Rosa, “Critique of Ideology and Historical Practice,” in *Casabella* 619-620, 1994, p.33

힘들 정도로 얇은 이해였고 수용사라 일컬을 수 없을 만큼 과편적 독해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주의가 사유의 중심이던 시절 '타푸리'는 강력한 기표였다. 그러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의식은 다른 무엇보다 운동에 필요한 동력을 필요로 했다. 타푸리는 한국의 건축과 도시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데 유용했지만, 이를 위해서 타푸리의 미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 당시 유행하던 종속이론과 같은 사회과학 담론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민중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이 당연하게 요구되었던 1980년대 말 부정성 자체는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다.⁴⁴⁾ 이탈리아 노동자 운동과 한국의 학생운동은 모두 도시와 건축, 나아가 세상을 바라볼 새로운 틀을 요구했다. 전자가 탈정치적 정치이론을 낳았다면 후자는 정치적 주체가 되고자 했다. 이 교차와 어긋남, 이론과 실천의 서로 다른 요구 사이 어딘가에서 타푸리는 호출되고 또 사라졌다.

참고문헌

1. Alberto Asor Rosa, “Critique of Ideology and Historical Practice,” in *Casabella* 619-620, 1994
2. Aureli, Pier Vittorio, *Intellectual Work and Capitalist Development: Origins and Context of Manfredo Tafuri's Critique of Architectural Ideology* (<http://thecityasaproject.org>)
3. Aureli, Pier Vittorio, *The Project of Autonomy*, 1st e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08
4. Biraghi, Marco, *Project of Crisis*, 1st ed., MIT Press, Cambridge MA, 2013
5. Bolongaro, Eugenio, *Italo Calvino and the Compass of Literature*, 1st ed., Toronto University Press, Toronto, 2003
6. Cacciari, Massimo, *Architecture and Nihilism: On the Philosophy of Modern Art*, 1st ed.,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93
7. Cohen, Jean-Louis, “Italophiles at Work” i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Cambridge MA., 1998
8. Ciucci, Giorgio, Dal co, Francesco, Manieri-Elia, Mario and Tafuri, Manfredo, *The American City: From the Civil War to New Deal*, 1st ed., MIT Press, Cambridge MA, 1973
9. Colomina, Beatrice, ed.. *Clip, Stamp, Fold: The Radical Architecture of Little Magazines 196X to 197X*, 1st ed., Actar, Barcellona, 2011
10. Day, Gail, *Dialectical Passions: Negation in Postwar Art Theory*, 1st ed.,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1
11. Hoekstra, Titia Rixt, *Building versus Bildung: Manfredo Tafuri and the Construction of a Historical Discipline*, Groningen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05
12. Kaminer, Tahl, *Architecture, Crisis and Resuscitation: The Reproduction of Post-Fordism*, 1st ed., Routledge, London, 2011
13. Keyvanian, Carla, “Manfredo Tafuri: From the Critique of Ideology to Microhistories” in *Design Issue*, vol 16., no 1, Spring, 2000
14. Leach, Andrew, Manfredo Tafuri, *Choosing History*, A&S/books, Gent, 2007
15. Martin, Reinhold, *Utopia's Ghost: Architecture and Postmodernism, Again*, 1st ed.,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16. Marx, Karl, *Capital*, vol.1, 2nd ed., Penguin Books, London, 1976
17. Negri, Antonio, “Keynes and the Capitalist Theory of the State post-1929,” in *Revolution Retrieved*, 1st ed., Red Note, London, 1988
18. Negri, Antonio, “The Real Radical?” in *The Italian Avant-garde, 1968-1976*, 1st ed., Sternberg Press, Berlin, 2013
19. Re, Lucia, *Calvino and the Age of Neorealism: Fables of Estrangement*, 1st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90
20. Sherer, Daniel, “Translator's Preface” in Manfredo Tafuri, *Interpreting the Renaissanc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2006
21. Tafuri, Manfredo, *Architecture and Utopia*, 1st ed., MIT Press, Cambridge MA, 1976
22. Tronti, Mario, “The Strategy of Refusal” in *Autonomia*, ed. by Sylvere Lotringer and Christian Marazzi. 1st ed., Semiotext(e), Los Angeles, 2007
23. Very, Françoise, “The Culture Market: Françoise Very interviews Manfredo Tafuri,” in *Casabella* 619-620, 1994
24. 김광현, 「규방閨房의 건축建築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시대 우리의 건축』, 1판, 안그라픽스, 1992
25. 김명인, 「불을 찾아서」, 실천문학, 26호, 1992 여름호
26. 김원갑, 「제2의 근대와 신구성주의」, 건축과 환경, 34호, 1987. 6
27. 안토니오 네그리, 「케인즈 그리고 1929년 이후의 자본주의적 국가이론」, 『혁명의 만화』, 1판, 갈무리, 서울, 2005
28. 류동민, 『기억의 몽타주: 서울 1988년 여름, 말한 것과

44) 정홍섭, 「전후 민족문학의 전개과정」, 『전환기의 민족문학』, 1판, 풀빛, 서울, 1987, 138쪽

30 논문

- 말하지 않은 것』, 1판, 한겨레출판, 서울, 2013
29. 마이클 하트, 『네그리 사상의 진화』, 1판, 갈무리, 2008
30. 민문홍, 「이데올로기 개념의 역사: 한국사회 이데올로기 논쟁의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3
31. 박태균, 『원형과 변용』, 1판,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2007
32. 박훈영, 「건축운동연구회: 모색과 작은 실천(1989-1993)」, 건축과 사회, 제25호, 2013 특별호
33. 빌 리제베로, 『건축의 사회사』, 1판, 열화당, 2008
34. 볼프강 슈벨부시, 『뉴딜, 세 편의 드라마』, 1판, 지식의 풍경, 서울, 2009
35. 이상현, 「타푸리의 건축론」, 공간, 205호, 1984. 7
36. 이상현, 「타푸리의 건축비평」, 건축과 환경, 25호, 1986. 9
37. 정이담, 「문화운동 시론」, 『문화운동론』, 1판, 도서출판 공동체, 서울, 1985
38. 정홍섭, 「전후 민족문학의 전개과정」, 『전환기의 민족문학』, 1판, 풀빛, 서울, 1987
39. 함인선, 「청년건축협의회」, 건축과 사회, 제25호, 2013 특별호
40. 함인선·이상현·박인석·김한준, 『문학과 역사』, 1호, 1987

접수(2015. 2. 15)

수정(1차: 2016. 2. 11, 2차: 2016. 3. 17, 3차: 2016. 4. 7,
4차: 2016. 4. 9)

게재확정(2016. 4. 12)